

중학생 자기에 성향의 하위유형에 따른 기질과 공감 능력의 차이

손 에 리 고 은 경 황 순 택[†]

한양대병원 신경정신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에적 성격의 하위 유형인 외현적 자기에 성향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군이 기질과 공감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생 325명을 대상으로 성격장애진단검사-청소년용(PDDS-A)의 자기에적 성격장애 척도,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 대인관계 반응양식 척도(IRI), 기질 및 성격검사(JTCI)의 기질척도를 실시하였다. 자기에적 성격장애 척도 점수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 점수를 조합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 45명(남16, 여29),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 35명(남15, 여20), 자기에 성향이 낮은 비교집단 37명(남28, 여9)을 선발하여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자극추구와 위험회피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 및 비교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인내력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비교집단 및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공감능력(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관점 취하기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상하기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과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관심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인적 고통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과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에 비하여 실제 적응에서 보이는 공감 특성이 더 역기능적임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현적 자기에 성격, 내현적 자기에 성격, 기질, 공감 능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번지
Tel: 043-261-2187/ Email: Hstpsy@chungbuk.ac.kr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3판(DSM-III;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진단 준거가 일부 수정된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칭찬에 대한 욕구, 특권의식, 공감의 결여가 생활 전반에 나타나 사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하는 성격’에 초점을 맞추었다.

DSM-IV에 제시된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은 주로 Kernberg(1975)가 기술한 자기애적 성격의 외향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DSM-IV에 제시된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내면적인 자기상은 동일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자기에 병리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Akhtar & Tompson, 1982; Cooper & Ronningstam, 2002; Wink, 1991). 그 중에서도 자기애적 성격장애 집단을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Akhtar & Thompson, 1982; Kohut, 1977). 자기애적 성격의 하위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은 기존의 자기에 척도들 간의 상관이 낮으며(Wink, 1991; Wink & Gough, 1990), 자기에 척도들을 요인분석했을 때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된다는 연구결과들에서도 시사된 바 있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성공과 권력,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빠지며, 과도한 찬사와 특별한 대우를 바란다. 또한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거대화된 자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

현적 자기애와 유사하나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며 부정적 평가에 취약한 점이 다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축되어 있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하고, 다른 사람 말의 비판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낀다(Akhtar & Thomson, 1982; Kohut, 1977). 한편 Winks(1991)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자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으며 억제적이다. 또한 이들은 외현적 자기애자보다 더 역기능적이기 때문에 안녕감, 유능감, 적응성이 부족하고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에 비해 적응과정에서 더 병리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Watson과 그의 동료들은 자기애적 성격의 양상이 ‘기능성’ 차원 상의 다양한 수준에서 발현된다고 주장하였다(Watson, Little, Sawrie, & Biderman, 1992; Hickman, Watson, & Morris, 1996). 이 견해에 의하면 내현적 자기에 ‘기능성’ 차원의 한쪽 극단인 역기능적인 위치에 존재할 것이고 외현적 자기에 그 반대 부분의 기능적인 쪽에 위치할 것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외현적 자기에 자존감 및 긍정성(Optism)과 정적 상관이 있고(Watson et al, 1992, 1996) 우울한 증상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Rathvon & Hormstrom, 1996). 반면 내현적 자기에 우울, 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Rathvon & Hormstrom, 1996).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에 특성들이 적응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난다는 가설을 지지하며 외현적 자기애가 적어도 일부 영역에서는 적응적인 반면 내현적 자기에 일차적으로 역기능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외현적 자기가 순수하게 적응적인 성격 특성이라는 것은 아니다. 외현적 자기에 성격이 부분적으로는 역기능적일지라도 심리적 안녕감의 몇 가지 지표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이들이 적어도 내현적 자기에 없는 자기도취(self-absorption)를 통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몇몇 이론가들은 심지어 외현적 자기의 착각적 자기고양(illusory self-enhancement)이 어느 정도까지는 더 큰 안녕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Rose(2002)는 외현적 자기에 유형이 만성적인 자기 고양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깊은 불안정성을 지닌 내현적 자기에 유형은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연구 결과 두 유형의 자기에 있어서 자존감이 매개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 결과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착각이 비록 방어적인 자존감과 연관된다 하더라도 심리적 안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음(Raskin, Novacek, & Hogan, 1991)을 시사한다. 즉 외현적 자기가 이러한 방어적인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 자기도취를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더 역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DSM-IV 진단분류 체계는 성격장애 진단을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지만 성격장애와 관련된 전조적 문제는 대개 청소년기에 나타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성격장애의 일반적 진단기준으로서 '행동 양식이 변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발병 시기는 적어도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격장애 연구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성격장애 문제를 다룬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성격은 오랜 시간을 두고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기에 성향과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eck, Freeman과 Davis(2004)는 선천적 기질이 과장된 형태로 표현되면 성격장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기질적 기본성향은 특히 강력하고 극단적일수록 조절되지 않은 채 과장된 형태로 발현된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Cloninger는 인성 특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질과 성격차원을 포함하는 심리 생물학적 모델(Cloninger, 1987; Cloninger, Bayon, & Svrakic, 1998; 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 기질은 정서 자극에 대한 자율신경계 반응이다. 특히 기질 차원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정신장애와 신체장애의 전조 요인(예를 들어, Battaglia, Przybeck, Bellodi, & Cloninger, 1996, Keltikangas-Järvinene, Ravaja, & Viikari, in press; Wills, Windle, & Cleary, 1998)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박성 성격이나 의존성 성격 등 성격장애를 구분하는데 유용하다고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Cloninger, 1987).

Cloninger(1987, 2004)는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새로운 자극에 의해 행동이 활성화 되는 경향), 위험회피(Harm Avoidance: 위험 자극에 의해 행동이 억제되는 경향),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사회적 보상신호에 대한 민감성), 인내력(Persistence: 지속적 강화 없이도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의 네 가지 기질 차원을 확인하였다. Svrakic, Whitehead, Przybeck, 및

Cloninger(1993)의 연구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군집 B 성격장애와 상관이 높고, 위험회피 기질은 군집 C 성격장애와 상관이 높으며,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군집 A 성격장애와 높은 부적 상관이 보고되었다. 아울러 기질차원들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특정한 기질 유형은 특정한 성격장애에 대한 취약성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질은 어느 것이 더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실제로 적응에 더 유리한 기질과 더 불리한 기질이 존재한다는 연구가 있다(유성진, 권석만, 2009).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은 약하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은 강할수록 적응에 유리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적응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Svrakic, Draganic, Hill, Bayon, Pzybeck & Cloninger, 2002).

개인의 적응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자기에적 성격장애 진단 준거에 ‘감정이입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려 한다’는 항목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기에적 성격장애는 공감 능력의 결여가 특징적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조망하고 예측하는 공감능력은 대인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며 스트레스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알고, 공유하며 이를 토대로 대인관계에서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자아강도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이며, 현실 검증, 지능, 창의력, 정서적 건강의 예방과 유지에 중요하다(Kohut, 1977).

공감 능력이 다차원적인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 Davis(1983)는 공감을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나누고 그 하위 구성요소들을 변별 가능한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감 능력을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구분했다. 공감 능력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는 관점취하기(perspective-taking)는 정서적 반응성과는 별 관련이 없는 대신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정서적 요소를 측정하는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은 일반적인 정서반응성, 타인 지향적 민감성, 배려 등과 강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Davis, 1983).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자기에적 성격 성향이 뚜렷한 중학생으로, 이들은 학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의 확장과 변화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적응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자와 외현적 자기에적 성향자는 내면적으로 동일하게 거대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 서로 다른 행동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공감반응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상대적으로 적응적이지 못한 공감 반응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DSM-IV에서 자기에적 성격장애는 18세 이후에 진단하나 오랜 시간을 걸쳐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성격장애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성인기 이전에 전조 증상이나 성격 병리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향후 성격장애로 발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천적 기질이 과장된 형태로 표현되면 성격장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Beck 등(2004)의 연구에 입각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향 청소년과 외현적 자기에 청소년의 기질이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만일 두 성향집단 청소년의 기질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면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서로 구별되는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공감 능력이 내/외현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최근까지 청소년의 자기에를 내/외현적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알아본 연구들이 적고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기질과 공감 반응양식 차이에 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집단을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과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 자기에 성향이 낮은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에 기질과 공감 능력에서 어떤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청주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163명으로 50.2%였고, 여학생은 162명으로 49.8%였다.

측정도구

성격장애진단검사-청소년용(Personality

Disorder Diagnostic Scale for Adolescent, PDDDS-A)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황순택(1995)의 연구에서 전형성 평정을 통해 개발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및 그 측정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만든 성격장애 진단검사를 손애리와 황순택(2010)이 청소년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중 자기에적 성격장애 소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총 13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적 성격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보고한 성인용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66이었으며, 손애리와 황순택(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용의 내적 합치도는 .63,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0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Ahk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이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요인과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하위요인을 모두 사용하지 않

고 이 중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 3개만을 사용하였다. 즉 청소년용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와 내현적 자기에 고유요인이 모두 상위 30% 이내에 들었을 때에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반응양식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본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s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양식 척도(IRI; 1980)를 국내에서 김성은(1997)이 청소년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는데 관점취하기(perspective-taking), 상상하기(fantasy),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등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인 요소를,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요소를 반영하는 공감 능력에 해당된다. 특정 반응양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반응양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JTCI 청소년용(오현숙, 2002; 오현숙, 민병배, 2004)은 Cloninger 등(1994)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 의해 구성된 TCI(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검사군들 중의 하나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되는 청소년용 기질 및 성격검사이다. Cloninger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성(personality)적 특성을 유전적인 요인인 타고난 특성과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JTCI 중 4개의 기질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보상단서에 행동이 쉽게 이끌리며 별의 신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기체인 행동활성화 시스템에 해당되는 자극추구(Novelty Seeking), 별의 단서나 보상부재 앞에서 일어난 수동적인 억제를 의미하는 위험회피(Harm Avoidance), 한번 보상된 행동은 계속되는 지속적 강화 없이도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행동 유지 시스템에 해당되는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및 인내력(Persistence)의 네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해당 기질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집단 구분

선행연구(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의 집단구분방법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은 전체자료에서 PDDS-A 자기에적 성격장애 척도 점수가 상위 30%(37점)인 참가자 중 내현적 자기에성 성격장애 척도에서 하위 30%(41.8점)인 참가자를 선별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성격장애 집단은 자기에적 성격장애 척도에서 상위 30%(37점)에 해당하면서 내현적 성격장애 척도에서도 상위 30%(60점)에 해당하는 참가자를 선별하였다. 자기에 성향이 낮은 비교집단은 자기에적 성격장애 척도와 내현적 자기에성 성격장애 척도 모두 하위 30%(PDDS-A 자기에적 성격장애: 31점, CNS: 41.8점)에 해당하는 참가자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사용된 참여자들은 117명이 선별되었는데 이 중 내현적 자기에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45명(남16, 여29), 외

현적 자기에 35명(남15, 여20), 자기에 성향이 낮은 비교집단은 37명(남28, 여9)이었다.

결 과

세 집단을 대상으로 각 측정치 별로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 자극추구, 위협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네 기질차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각 $F(2, 114)=8.489, p<.001$; $F(2, 114)=36.394, p<.001$; $F(2,114)= 3.184, p<.05$; $F(2, 114)=13.955, p<.001$.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é test)을 실시한 결과, 자극추구 차원에서는 내

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 집단과 비교집단에 비해 자극추구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편 외현적 자기에 성향 집단과 비교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협회피 차원에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과 비교집단에 비해 위협회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에서도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과 비교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민감성 차원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내력 차원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 집단이나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질, 공감의 집단간 비교

척도	외현적 자기에 집단 (n=35)	내현적 자기에 집단 (n=45)	자기에 성향 낮은 비교집단 (n=37)	F	Scheffé 검증결과
기질 특성					
- 자극추구	18.03(6.26)	21.83(6.05)	16.46(6.03)	8.489***	외현, 비교<내현
- 위협회피	16.86(5.84)	25.40(5.59)	16.27(4.92)	36.394***	외현, 비교<내현
- 사회적 민감성	17.36(3.53)	16.27(4.03)	15.09(3.78)	3.184*	비교<외현
- 인내력	15.86(3.72)	12.12(2.90)	14.18(2.88)	13.955***	내현<비교, 외현
공감 능력					
인지적 공감	36.40(8.46)	35.54(6.77)	29.86(7.23)	8.475***	비교<내현, 외현
- 관점취하기	17.37(4.99)	14.67(5.24)	16.54(3.77)	3.449*	내현<외현
- 상상하기	19.03(5.08)	20.87(3.75)	13.32(5.00)	28.881***	비교<내현, 외현
정서적 공감	30.43(5.91)	34.69(6.33)	27.60(5.74)	14.430***	외현, 비교<내현
- 공감적 관심	18.17(3.68)	16.81(4.12)	16.04(3.15)	3.063 ns	
- 개인적 고통	12.26(3.35)	17.88(3.33)	11.57(3.67)	41.906***	외현, 비교<내현

***p <.001, **p<.01, *p<.05

공감 능력에 대한 집단별 분석 결과, 인지적 공감 능력 전체로 볼 때 내/외현적 두 자기에 성향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인지적 공감점수를 보였고 $F(2, 114)=8.475, p<.001$. 정서적 공감 능력 전체로 볼 때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과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정서적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14)=14.430, p<.001$. 한편 공감 능력의 하위 요인별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관점취하기 요인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보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F(2, 114)=3.449, p<.05$. 상상하기 요인에서는 내/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F(2, 114)=28.881, p<.001$. 공감적 관심 요인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F(2, 114)=3.063, ns$. 개인적 고통 요인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과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F(2, 114)=41.906, p<.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하위 유형에 따라 기질과 공감 능력에서 어떤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자기에 성향집단별 기질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차원에서 외현적 자기에 성향 집단 및 비교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인내력 차원에서는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

적 민감성 차원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정리하자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 성향이 강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SM-IV 성격장애 군집 B에 속하는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기질 특성과 유사하다. Cloninger와 그의 동료들은 지역사회 연구를 통하여 높은 자극추구와 위험 회피적 특징을 보이는 경계선적 기질은 성격발달이 손상되었을 위험성이 상당히 크며, 이들이 자기주도성과 협동성 척도에서도 낮은 점수를 얻어 성격적 측면의 부적응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Cloninger, Prizbeck, Svrakic, & Wetzel, 1994).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은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부적응의 문제를 일부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Svrakic 등(2002)은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은 약하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이 강할수록 적응에 유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적응에 불리하다고 하였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낮았으며 사회적 민감성이 높았고 인내력 기질에서는 오히려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 보다 적응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기에 성향집단 별 공감 능력을 분석한 결과, 관점 취하기 요인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고, 상상하기 요인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관심 요인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인적 고통

통 요인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나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즉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을 파악하는 수준이 높고, 상상하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정서적인 동요가 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적인 관심을 비교적 잘 유지하는 반면 개인적인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고 있다. 한편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을 이해하는 수준이 낮고, 실제 인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사람들에게 감정이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정서적인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고통을 더 심하게 경험하여 부적응적인 공감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 결과,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의 공감 능력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상상하기 요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점 이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는 DSM-IV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공감의 결여’라는 특징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외현적 자기에 성향 청소년들이 자신의 웅대한 자기상이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상상하기라는 정신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실제 대인관계에서 공감적 교류가 더 적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이 관념적 수준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정서적으로 이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적응적 공감 특성을 보일 수 있다.

Cooper와 Roningstam (2002)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공감을 보이려고 애쓴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인지적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상상하기를 더 많이 하고 정서적으로 개인적 고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보다 더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기애적 성격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평가를 통하여 웅대한 자기개념을 유지하고자 한다(Morf & Phodewalt, 1993, 2001; Rhodewalt, 2001, 2005; Rhodewalt & Morf, 1998, Rhodewalt & Sorrow, 2002). Zukerman과 O’loughlin(2009)은 비임상집단에서 자기애와 안녕감의 여러 가지 척도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자기애는 안녕감과 관련이 있으며 안녕감의 수준이 클수록 자기애의 정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자기애는 더 나은 평가를 측정하는 척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Rose, 2002; Watson & Biderman, 1993; Wink, 1991). Sedikides, Rudith, Gregg, Kumashiro, 및 Rusbult(2004)는 자기애와 정신건강, 자존감의 관계에 관하여 다른 5개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자기애가 더 나은 정신건강과 연관되어 있고 이런 관련이 자존감에 의하여 완전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비임상 집단의 청소년이었으므로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이 비교적 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논의들이 가능하였으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과 앞으로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일반 청소년 자기

에 성향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상적인 집단으로 확장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대인관계에서 공감 능력은 ‘성향적 공감’ 또는 ‘특성 공감’으로 지칭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알거나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일반적 성향을 의미한다.(박성희, 2004). Rogers(1957)는 공감이란 타인의 사적인 세계에 들어가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며, 그 사람이 매순간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느낌과 의미에 민감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공감을 단일한 측면으로 보지 않고 보다 다차원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e.g. Bohart & Greenberg, 1997; Davis, 1994). 즉 공감이란 인지 또는 정서 어느 한 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두 가지 요소가 상호 관련된 체제이고 다중적인 차원을 가지므로 단일한 측면만을 연구하여서는 공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e.g. Davis, 1980; Hoffman, 1977). 따라서 공감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형 검사와 더불어 영화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주인공에 공감하는 정도나 공감 실험 상황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애적 성격 성향에 따른 기질과 공감 능력의 양상을 검증하였다. 추후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자기애적 성향의 행동 양상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인집단을 함께 분석하여 직접 비교를 함으로써 청소년집단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몇몇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적 성향간에 기질

및 공감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실제 상담 및 교육과정에서 자기애 성향 청소년들의 적응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 유용성이 있다. 즉 이들이 단일한 성향을 가진 집단이 아니므로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서로 구별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청소년들이 과장적이고 대인관계에 방해가 되는 병리적인 자기애 수준으로 증상을 발전시키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이들의 긍정적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969-990.
- 김성은 (1997). 학생의 감정공명과 학업성적, 학급내 사회성, 학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 검사 매뉴얼. 서울: (주)마음사랑.
- 박성희 (2004). 공감학. 서울: 학지사
- 손애리, 황순택 (2010, 심사중). 청소년기 성격 병리의 평가: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사용가능성.
- 오현숙, 민병배 (2004). 기질 및 성격검사 - 청소년용 매뉴얼. 서울: (주)마음사랑
- 유성진, 권석만 (2009).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에 있어서 기질-성격 모형의 임상적 시사점. 한국심리학회: 임상, 28(2), 563-586.
-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평 성격장애 진단

- 검사의 대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73-288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ktar, S., & Thom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ttaglia, M., Przybeck, T. R., Bellodi, L., & Cloninger, C. R. (1996). Temperament dimensions explain the comorbidity of Psychiatric disorders. *Comprehensive Psychiatry*, 37, 292-298.
- Beck, A. T., Freeman, A., & Davis, D. D. (2004).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disorders*. NY: The Guilford Press.
- Bohart, A., & Greenberg, L. (1997). *Empathy revisit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 Washin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loninger, C. R. (2004). *Feeling good: The science of well-being*.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loninger, C. R., Bayon, C., & Svrakic, D. M. (1998). Measurement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in mood disorders: a model of fundamental states as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1, 21-32.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ology*, 50, 975-990.
- Cooper, A. M. & Ronningstam, E. (200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A. Tasman, M. B. Riba (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1(pp. 80-9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atric Press.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Madison, WI: Brown & Benchmark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52, 11-17.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ickman, S., Watson, P., & Morris, R. (1996). Optimism, pessimism, and the complexity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521-525.
- Hoffman, M. L. (1977). *Empathy, its development and prosocial implication*, In H. E. Howe, Jr & C. B. Keasey(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2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 Kernberg, O. (1976).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orf, C. C. & Rhodewalt, F. (1993). Narcissism and self-evaluation maintenance: Exploration in object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68-676.
- Morf, C. C., & Phodewalt, F. (2001). Expanding the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of narcissism, *Psychological Inquiry*, 12, 243-251.
- Raskin, R., Novacek, J., & Hohan, R. (1991). Narcissistic self-esteem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11-918.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hodewalt, F. (2001). *The Social mind of the narcissist: Cognitive and motivational aspects of interpersonal self-construction*, In J. P. Forgas, K. Williams, & L. Wheeler (Eds.), *The social mind: Cognitive and Motivational aspects of interpersonal behavior* (pp. 177-19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hodewalt, F. (2005). *Social motivation and object relations: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self-esteem regulation*, In J. Forgas, K. Williams, & W. Von Hippel (Eds.), *Social Motivation: Conscious and incounscious processes*. (pp. 332-35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s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72-685.
- Rhodewalt, F., & Morf, C. C. (2005). *Reflections in troubled waters: Narcissism and the vicissitudes of a interpersonally contextualized self*. In A. Tesser, J. V. Wood, & D. A. Stapel (Eds.), *On building, defending and regulating the self: A psychological perspective* (pp. 125-149).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Rhodewalt, F., & Sorrow, D. (2002). *Interpersonal self-regulation: Lessons from the study of narcissism*. In M. Leary, & T.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519-535). New York: Guilford.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 95-103.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1-391.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87, 400-416.
- Svrakic, D. M., Draganic, S., Hill, K., Bayon, C., Przybeck, T. R., & Cloninger, C. R. (2002). Temperament, Character, and personality disorders: Etiologic, Diagnostic, treatment issue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6.
- Svrakic, D. M., Whitehead, C., Pzybeck, T. R., & Cloninger, C. R. (1993). Differential diagnosis of personality disorders by the seven-factor of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 General Psychiatry*, 991-999.
- Watson, P. J., & Biderman, M. D. (1993).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factors, Splitting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41-57.
- Watson, P., Hickman, S., & Morris, R. (1996). Self-reported narcissism and shame: testing the defensive self-esteem and continuum hypothe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 253-259.
- Watson, P., Little, T., Sawrie, S., & Biderman, M. (1992). Measur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Complexity of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d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 433-448.
- Wills, T. A., Windle, M., & Cleary, S. D. (1998). Temperament and novelty seeking in adolescent substance use: Convergence of dimensions of temperament with constructs from Cloninger's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387-406.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446-462.
- Zuckerman, M., O'loughlin, R. E. (2009). Narcissism and well-being: A longitudin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 957-972.

원 고 접 수 일 : 2010. 10. 25.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2. 18.

최종게재결정일 : 2010. 12. 22.

Temperament and Empathy on the overt and covert narcissistic subjects in youth group

Aeree Son

Eunkyung Koh

Soontaek Hwang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narcissistic group of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subtypes of overt and covert. To investigate differences of two group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in PDDS-A), the Covert Narcissism Scale (CNS),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and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were administered to 325 students of age 13-14. 35 students of those were overt narcissistic and 45 students of those were covert narcissistic. The control group was consisted of 37 students. Correlation analysis have been carried out using SPSS. As a result, the covert narcissistic students showed statistically higher Novelty seeking and Harm avoidance but lower Persistence compare to the overt narcissistic and control students. After looking for empathy between groups, we found that overt narcissistic student present better perspective-taking than covert. And overt and covert narcissistic students showed higher fantasy compare to control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on empathic concern. On personal distress, covert narcissistic students showed higher score than the overts and the control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covert narcissists have more malfunctioned aspects on the other hand the overt narcissists are rather adaptive in a real world.

Key words : 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emperament, Empathy